

재정분권 정부안의 뒷...수도권 쏠림 가중 우려

전남도, 교부세 감소분 선배분 방식 도입 촉구 지방소비세 인상분 지역별 가중치도 확대해야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 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지자체에 주는 지방 교부세가 감소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력이 약한 일선 시·군은 지방교부세 감소의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남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면서 지방소비세율을 현 11%에서 2019년 4%포인트, 2020년까지 6%포인트 올려 21%까지 상향, 국민세 부담 증가없이 11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균형발전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다른 배분방식을 수도권·광역시·도를 1:2:3으로 적용하고, 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는 감소하게 된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도가 2017년 지방소비세 세입을 기준으로 시물레이션 결과, 2017년 3922억원(도 2815억원, 시군 1107억원)에서 2019년 5629억원(도 4522억원, 시군

1107억원) 등으로 1707억원이 증가하고 2020년에는 8189억원(도 7802억원, 시군 1107억원)으로 4267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 총 재정 규모로 볼때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면 국비인 지방교부세는 감소하게 된다.

결국 재정력지수가 낮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남도는 지방교부세가 881억원(도 143억원, 시군 738억원) 감소돼 실제 증가액은 2019년 826억원, 2020년 3386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구례군처럼 지역 소비가 적고 지방교부세(2017년 1307억원) 의존도가 높은 기초단체의 경우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약화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시 세수가 많은 수도권에 혜택을 많이 보게 돼 지

역 격차가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인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해법으로 재정 격차 완화장치인 지방교부세 감소분의 선배분 방식 도입과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의 지역별 가중치를 1:2:3에서 1:3:5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종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최소한 2014년 지방소비세율 6% 인상시 시도간 재정격차 완화장치였던 지방교부세 감소분 선배분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현행 1:2:3인 배분 가중치를 1:3:5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어렵다.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평가 시민심사단 증원·심사방식 변경

광주시, 시민단체 의견 수렴 심사단 모집 수정 공고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평가할 시민심사단 인원을 늘리고 심사 방식도 변경했다. 공공성 증진, 인근 주민 의견 반영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31일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시민심사단 모집 수정 공고를 냈다.

지난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인 모집 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로 늘리고 모집 인원도 51명에서 141명으로 확대했다. 시민심사단 모집 인원도 3개 권역으로 나뉘었다. A권역(중앙1·중앙2) 45명, B권역(중외·일곡) 45명, C권역(운암산·신용) 45명이다. 광주시민 6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해당 공원 주민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후보군(권역별 45명·시민 6명)을 추려 시에 추천한다. 시는 7일 후보군 가운데 추첨을 통해 권역별로 15명씩 45명, 광주시민 2명을 시민심사단으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시민심사단은 7일 시청에서 열리는 평가회에 참여해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한다.

공원별로 ▲중앙1지구 2개 업체 ▲중앙2지구 3개 업체 ▲중외 2개 업체 ▲일

곡 3개 업체 ▲운암산 4개 업체 ▲신용(운암) 1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다. 송정공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다.

심사 방식도 기존에는 시민심사단이 전체 공원을 심사하도록 했으나, 해당 공원 주민이 권역별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어 8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고 득표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평가 점수는 정량 평가 50점, 제안심사 40점, 시민심사 10점, 가점 5점 등 105점 만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원 개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주민들의 참여를 늘리고, 해당 주민들이 제안서를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심사단 인원과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민간공원 대상지인 10개 공원 중 1단계 4개 공원을 이미 추진 중이며, 2단계는 1단계를 보완해 공원 전체부지 매입 후 일부 면적만 공원으로 조성하고 원형 보존함으로써 30% 범위 내 비공원시설 면적을 평균 9.3%로 대폭 축소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 참여가 축소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논의절차가 생략된 채 1단계의 시행착오를 답습하는 민간공원 2단계 시민심사단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건축 도시문화제 개막 지난 31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제15회 광주 건축 도시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위촉식

광주시는 지난 31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지역혁신을 선도할 광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했다.

광주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 9월 21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성하게 됐다. 협의회 위원은 시의회와 5개 자치구, 지역대학·공공기관·비영리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시 발전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지역 산업·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시책 시행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호남대 경영학과 장석주 교수가 만장일치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 장 의장은 행정안전부 정부 혁신 강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 현안 국고 반영 요청

전남도, 내년 국비확보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오늘 개최

전남도는 1일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연다. 또 이날부터 국회에 상주 상황실을 운영, 예결위원을 접촉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전남도 간부들은 1일 낮 12시 국회에서 전남지역 출신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지역 여야 국회의

원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모두 1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역 현안 36개 사업, 4000여억원 규모의 국비 예산을 건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생활 SOC 등 국고시책 사업과 정부 공모사업 2500여억원 규모 지원도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현안 국고지원 사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국립 에코식물원 조성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련

사업 13건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 완공(2025→2023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및 전철화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등 국도교통위원회 관련 사업12건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련 사업 4건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조사연구 지원 ▲남부 내륙권 권역관광개발사업 지원 등 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7건 등이다.

도 정책지원 사업으로 ▲전남 핵심 인프라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서남해안 관광도로(완도-고흥) 건설 ▲한정공대 설립 지원 ▲간척지 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고시 ▲전기사업 허가권 시도지사 이관 등을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2년 연속 정부 예산 6조원 이상이 반영됐다"면서 "올해도 힘을 모아 초당적으로 공동 대처해 지역 현안사업들이 국가 계획과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당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첫 도입 홍보정책보좌관에 고영봉씨

전남도는 올해 첫 도입한 홍보정책보좌관에 언론인 출신 고영봉(사진) 전 도민소통실장을 지난 31일 임용했다.

신임 고 보좌관은 1988년 전남일보 취재기자로 시작해 광남일보 편집국장을 거쳐 올해 3월까지 도민소통실장을 맡았다. 신선했던 홍보정책보좌관은 3급 상당의 전문인기제 직위이며, 도정 홍보와 관련된 각종 활동 및 정책 결정을 보좌하고,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이날 일부 과장급 전보와 퇴직급 이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22면> 투자유치과장 직 무대리에 박환주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사무국장을 보임하고, 신상식 투자유치 과장직무대리는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사무국장으로 파견 발령했다. 5급(팀장)은 승진교육 이수자 19명이 직급 승진했으며, 6급 이하는 62명이 승진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두 눈에 청춘을, 신세계안과 노안수술

- 카탈리스 레이저 노안수술 2,000례 달성 (3D OCT와 레이저를 통한 수술의 정확도와 안정성, 성공률을 보장하는 신개념 최첨단 수술 시스템)
-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노안 해결
- 다양한 다초점 렌즈 보유하여 눈에 가장 적합한 렌즈 삽입 (팬옵티스, 리사트리, 심포니, 테크니스, 파인비전 등)
- 각막 후면 난시 제거 수술이 가능한 '카시니' 장비 도입 (GPS방식으로 측정·분석)
- 수술결과를 향상시키는 안구 네비게이션 '베리온' 도입
- 1 DAY 노안수술 가능
- 백내장 진단 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1566-9988**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포드,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